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3동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Case of Doksan2·3-dong, Geumcheon-gu, Seoul

정 현** · 정 문 기***

Jeong, Hyun · Jeong, Moon-Gi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설계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동과 독산3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금천구의 독산3동은 2006년 시·구청을 중심으로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행된 곳으로, 현재까지 매해 대규모 마을행사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독산2동은 인접한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할만한 마을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설문자료에 기반 한 회귀분석결과, 독산2동과 독산3동을 포괄하는 통합모형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이 주민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독산2동에서는 네트워크만, 독산3동에서는 신뢰와 네트워크가

* 본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BK21PLUS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관리번호 21B20151413334), 2017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아주대학교, 8월 17일-18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발전시켰음.

** 제 1저자,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논문 접수일: 2019. 2. 1, 심사기간: 2019. 2. 1~3. 26, 게재확정일: 2019. 3. 26.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3가지 모든 모형에서 네트워크가 주민참여에 가장 강력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각 지역의 공무원, 주민 대표 및 주민과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네트워크가 신뢰나 호혜적 규범 등의 다른 사회적 자본 구성요인을 만드는 시작점이자 그 요인들이 증폭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가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 주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며,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가능한 주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시작과 운영 및 지속을 위해서 확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 주제어: 주민참여, 사회적 자본, 마을공동체사업, 네트워크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citizen participation. We collected and analyz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residents of Doksan2-dong and Doksan3-dong in Geumcheon-gu, Seoul. Doksan3-dong implemented the 'Cultural Village Community Project' in 2006, centering on Public sectors, and has been actively operating as a large-scale village event since then. On the other hand, although Doksan2-dong is an administrative district adjacent to Doksan3-dong, there is not enough village community project to represent the village. Th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rust, network, and reciprocal norm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integrated model that included the Doksan2-dong and Doksan3-dong. However, in Doksan2-dong, the network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and in Doksan3-dong, the trust and the network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particular, it is confirmed that the network has the strongest positive effect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all three models.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village representatives and village residents of each area, it is confirmed that the network is a starting point for creating other social capital components such as trust and reciprocity norms. This shows that the network among social capital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secur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etwork to secure the sustainable citizen particip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In summary, this study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solid network for the star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village community projects.

□ Keywords: Citizen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Village Community Project, Network

I. 서론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과 1995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부활됨에 따라 지방의 공공 정책과 행정에서 주민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김대건, 2011; 김병록, 2011; 박종관, 2012; 최문형·정문기, 2015). 이에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김병록, 2011). 주민참여는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에 참여하여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다(최문형·정문기, 2015).

하지만 산업화 및 도시화, 개인화의 심화는 지역사회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김권수, 2014). 관주도의 도시정책과 정비사업도 또한 물리적 측면 혹은 양적 측면에만 치중함으로써, 이미 형성되어 있던 주민들의 커뮤니티적인 요소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조명래 외, 2011; 하성규 외, 1999). 지역사회는 주민 및 사회구성요소간결집이 약화되고, 주민의 지역활동 참여는 더욱 저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0년대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중심의 ‘마을공동체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이인숙, 2015; 정현 외, 2017).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도시정책 및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를 토대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신중진·신효진, 2008; 정현·전희정, 2017). 이에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참여가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매우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이인숙, 2015).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는 대다수의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생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였다(홍진이, 2013). 따라서 주민의 자발성과 지속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바, 다수의 선행연구(이재완, 2014; 전용식, 2008; 정현·전희정, 2017; 하성규·박기덕, 2011)들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주민 간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주목해 왔다. 사회적 자본은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인해 약해진 주민들 간 연대감이나 커뮤니티 의식을 회복시킬 수 있고, 주민들 간 갈등이나 불신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다(정현·전희정, 2019).

특히, 마을공동체사업과 같은 주민참여 사업은 마을 혹은 행정구역 등 한정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간 연대감과 커뮤니티 의식의 수준은 중요하며,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원활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정현·전희정, 2017). 실제로 다수의 연구(박진아·김병석, 2014; 전용식, 2008; 최경애, 2016)는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함으로써, 주민참여가 활발해져 주민중심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중심의 사업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확보 및 축적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이재완,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의 본 목적을 실현하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요인으로 주민 간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주민 간 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주민의 마을활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마을공동체사업의 진행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비자발적 참여 등에 대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다만, 큰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거시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 소규모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동’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마을공동체사업의 상황을 적실히 파악하고, 추후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특정한 두 집단을 설정하고, 두 집단 간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집단 간 비교는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보다 명확한 차이를 확인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단 간 상이한 연구 결과가 제시됨에 따라 연구의 강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독산2동과 독산3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금천구의 독산3동은 2006년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매해 정기적으로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행사를 실시하는 등 장기간 마을공동체사업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산3동의 행사는 독산3동에 한정된 사업이 아닌 시청 및 구청을 비롯하여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성 또한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독산2동의 경우 독산3동과 인접한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부재했으며, 공동체에 대한 모범사례 역시 부재하다. 이에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두 행정구역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일한 금천구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환경에 의한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과학성을 확보하고자 동일한 금천구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연구 대상이 지역적·환경적 측면에서 유사·인접한 ‘동’이지만, 마을공동체사업 실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차적으로 두 행정구역에 동일한 설문지를 배포하여 사회적 자본 간 차이를 파악하고 각 사회적 자본이 주민의 공동체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추가적으로 각 행정구역의 주민, 주민대표, 공무원 등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양적 분석에서 제시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 간 관계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주민참여

주민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 살면서 상호 간, 그리고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Mattessich & Monsey, 1997: 56)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단순하게 지리적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인 것이다(Hillery, 1955). 이러한 정의를 통해 주민은 지역의 정치적·사회적 구성원이며, 거주성과 공공성 등이 결합된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이인숙, 2015). 또한, 참여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McCracken & Narayan, 1999; 이병대·심재승, 2012).

주민과 참여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통해 포괄적으로 ‘주민참여’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해당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병록, 2011; 전용식, 2008; 최문형·정문기, 2015). 먼저, Cunningham(1972: 595)은 주민참여를 “지역사회 내의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Harrigan(1989)은 지방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공무원의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혹은 집단의 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김병록, 2011). 즉, 개별 활동을 포함하여 단체를 통한 활동 역시 주민참여로 정의하고 있다. 또

한 Barber(1984)나 Perry & Katula(2001)은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일반적인 주민이나 단체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개입하거나 공식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결정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유동상·임정빈, 2016: 314). Verba(1967) 역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최문형·정문기, 2015: 276).

한편, 국내의 선행연구 역시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록(2011)은 주민참여를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주민이나 주민집단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종수·윤영진(2009)은 일반 주민이 기존에 존재하는 정치체제 내에서 지역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문형·정문기(2015)는 주민들이 자치의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인 측면 이외에도 마을이나 작은 행정구역 단위 등 미시적인 측면에서 정의되는 경우도 있다. 이인숙(2015)은 주민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역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마을자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구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초점 역시 마을공동체사업 내에서의 주민참여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주민참여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를 ‘마을공동체사업의 발의와 계획 및 수립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한다.

주민참여의 유형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분류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도적인 참여(투표 참여, 선거운동, 공직자 대면, 지역 내 공동체활동 등)와 비제도적인 참여(민원, 청원, 보이콧, 시위 등)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다(Verba·Nie, 1972). 한국에서의 마을공동체사업은 대체로 법·제도를 기반 하고 공공부문의 지원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민의 제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민참여는 도시계획 및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와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제 도시정책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확보할 수 있고, 정부와 주민, 주민스스로 간 협의를 통해 생활권이 변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강용기, 2008; 김상묵 외, 2004). 특정한 주민위주로 진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나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방법과 다르게, 실제 해당 지역에만 거주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를 달성하는데 최적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관수, 2014).

실제 마을공동체사업의 진행과정은 준비 및 구상단계, 추진단계, 평가단계 등 3단계로 진

행되고 있으며, 관련주체는 주민, 행정,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다(신중진·송승현, 2010). 모든 단계에서 관련주체의 참여는 존재하지만, 사업이 준비되고 구상되는 과정에서만 행정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들의 역할이 부각된다. 하지만 점차 주민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주체로 강조되며,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 사후관리 및 평가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지·보수와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신중진·신효진, 2010).

2.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논의되어온 개념인 만큼,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문창용·나주몽, 2015; 박수진·나주몽, 2015; 소진광, 2004; 오승은, 2012; 이희창 외, 2008; 최예나·김이수, 2015). 사회적 자본은 Hanifan(1920)에서 처음으로 해당 용어가 등장하였으며(Degraaf & Jordan, 2003), 이후 Bourdieu(1985)와 Coleman(1998), Putnam(1993a)의 논의를 통해 점차 구체화 되어 왔다(Paxton, 1999; 문창용·나주몽, 2015; 오승은, 2012; 윤원수·양덕순, 2014). 한편, 사회적 자본에 관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물질 자본 혹은 인적 자본과 유사하게 사회 내 생산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Dhesi, 2000; 이희창 외, 2008). 또한 사회적 자본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다는 점은 전반적인 동의를 받고 있다(Lappe & Bois, 1997; Leana & Buren, 1999; 이희창 외, 2008).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 수준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회적 자본은 크게 개인수준과 집단 혹은 지역사회수준 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김순은, 2014; 김혜연, 2011; 노병찬·주덕, 2016). 먼저,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Bourdieu(1986)와 Coleman(199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계급 경쟁 내에 있는 개인들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인식했다. Coleman(1990)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행위자 간 사회관계나 사회구조, 사회관계망 등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다. 즉, 그들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내에서 행위자들 간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박희봉, 2002). 이와 달리, Putnam(1993b)은 사회적 자본을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혹은 국가차원의 집합적인 자원으로 인식하였다(Nahapiet & Ghoshal, 1998; 김상준, 2004; 김순은, 2014). Putnam(1993b)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이익을 증진하고자 집단 혹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스스로 조정이나 협력하도록 촉진하는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즉, Putnam(1993b)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 지역민들의 참여와 생산성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본으로 인식되는데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노병찬·주덕, 2016).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연구들이 집단 혹은 지역수준에서의 사회적 본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왔다(박희봉·김명환, 2000; 배응환, 2002; 소진광, 2004, 최영출, 2004).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해당 사회 내 문화적 혹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표를 구성해야하나, 특정한 요소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어렵고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리지표를 통해 측정되고 있다(Healy & Cote, 2001). 또한, 사회적 자본 수준을 지역사회 간 비교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구성요소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김혜연, 2011). 아래의 <표 1>은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연구자	구성요소
Bourdieu(1986)	신뢰, 네트워크, 규범
Coleman(1990)	의무, 기대, 신뢰, 규범, 네트워크
Portes(1988)	신뢰, 네트워크, 규범
Putnam(2001)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
김성태(2012)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
문창용·나주몽(2015)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
박선희(2012)	신뢰, 네트워크, 규범
서종녀·하성규(2009)	신뢰, 비공식적 네트워크, 규범
오미옥·이진향(2013)	신뢰, 네트워크, 협력
하성규·박기덕(2011)	신뢰, 네트워크, 규범
홍성모 외(2011)	신뢰, 네트워크, 규범

자료: 김선희 외(2008), 문창용·나주몽(2015), 이희태(2012)의 내용을 재구성함.

이상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구성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요한 요인으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이 언급되고 있었다. 이에 사회적 자본의 형성 및 유지, 나아가 확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사회적 자본을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에서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뢰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 협동하거나 감시 및 통제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에서 말하는 신뢰는 일반적인 신뢰를 의미하며,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신뢰를 의미한다(노병찬·주덕, 2016; 윤원수·양덕순, 2014). 다음으로, 규범은 오랫동안 사회에서 인정되어온 행동에 대한 규칙을 말하며, 이는 공공재 혹은 다수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노병찬·주덕, 2016). 즉, 규범은 호혜적인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이며 계약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 참여하여 일정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와 규범이 보장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극대화하는데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노병찬·주덕, 2016; 문창용·나주몽, 2015).

3.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의 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또는 주민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등 상호 간의 개념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한편, 주민자치 위원회 등의 주민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감과 애착심이 형성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주민 간 배려와 신뢰가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이상훈 외, 2013).

하지만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은 사회적 자본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마을공동체사업의 목표 중 하나가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것을 차기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을 혹은 행정동’이라는 한정된 물리적 공간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민 간 형성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정현·전희정, 2017). 한정된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공동체는 오랜 기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형성된 공식적·비공식적 규범 및 신뢰를 통해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Narayan, 1997; 정현·전희정, 2019; 조창현 외, 2015a). 실제로, 다수의 선행연구는 높은 신뢰수준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공식적으로 의무이행의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낮은 신뢰수준의 집단보다 상호 의존하는 협력적인 행위가 증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창현 외, 2015a).

즉, 사회적 자본이 다량으로 축적된 공동체에서 적은 사회적 자본을 소유한 공동체보다 많은 참여나 활동, 협력 등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Narayan & Pritchett, 1996; Olson, 1982; Sergeldin & Grootaert, 2000; 조창현 외, 2015b).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확대는 주민의 참여를 증가시켜 개인 간 관계 증

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공동체 내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조창현, 2012; 하성규·박기덕, 2011).

이렇듯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정영운(2013)은 이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해 중간연결조직을 구성하여 일반적인 주민들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개인 간 신뢰를 향상하고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조직이나 주민의 참여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센터를 형성하는 것이다. 넷째, 주민 간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규범을 만들고 상호 간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오히려 실질적 참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즉,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는 비교적 소규모 집단에서는 강한 유대를 형성하도록 조장하기 때문에, 그 강한 유대가 집단 외부의 사람에게는 차별과 배제를 촉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박희봉, 2005). 이외에도 Kaase(1999)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경우에는 비합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에는 참여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한다(이양수, 2006).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 간 상호관계를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마다 사례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며 그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이인숙(2015)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3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역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거특성에 따른 차이를 말할 수 있다. 해당 흐름에서는 성별이나 연령, 거주기간, 소득, 교육수준 등이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곽현근·유현숙, 2005; 김홍순·원준혁, 2013). 둘째, 물리적·환경적 측면 등의 근린환경에 따른 차이를 말하고 있다. 즉, 지역의 근린시설과 서비스, 교통시설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박진아·김병석, 2014), 이외에도 빈곤율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 역시 주민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곽현근, 2004). 마지막으로, 정서적·인지적 측면 등의 이웃과의 관계나 유대감, 신뢰 등이 주민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웃 간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네트워크 구성, 정보공유, 신뢰 등이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집합적으로 해결하는데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Perkins et al.,

1992; 김동근, 2011; 김홍순·원준혁, 2013; 이지혜 외, 2009).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신뢰수준이나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실제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고,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증명하였다. 고진숙·서영수(2016)는 주민참여 의도나 주민참여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는데, 제도 등과 같은 공식적인 구조적 사회적 자본보다는 성공에 대한 공유, 마을발전과 나의 발전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신념, 정부시책에 대한 규범 준수 등과 같은 인지적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순은(2014)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자치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가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데, 신뢰나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등이 주민자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사항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양성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정현·전희정(2017) 역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마을공동체사업의 참여의지나 필요성에 대한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증명했다. 즉, 해당 행정구역에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수록 마을공동체사업의 참여나 필요성 인지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은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희경·박종관(2012)와 조용란(2011)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축제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의 결과 주민 간 연대와 네트워크 조직을 통하여 스스로 단결하고 신뢰감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축제와 같은 지역공동의 관심사에 참여 독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의 공감을 형성하고 협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내부적 자생력을 스스로 육성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자본 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실제로 계획되고 실시되는 규모인 '동'이라는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 대상지 설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광범위한 연구와는 다르게, '동'이라는 행정구역 단위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 실제적인 효과를 탐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규모라는 점에서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김순은, 2014). 또한 하나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보다 비교대상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단일사례의 연구 결과에 비해,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행연구와 달리, 마을공동체사업이 실제 실시되는 '동' 수준의 미시적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명확한 관계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진수·서영수, 2016; 김병록, 2011; 김순은, 2014; 이양수, 2006; 이회경·박종관, 2012; 전용식, 2008; 정현·전희정, 2017; 조용란, 2011; 조창현 외, 2015a). 다수의 선행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구성요소들이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활발한 참여가 일어나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사회적 자본의 축적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행정구역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비교를 통해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의 독산3동의 문화마을과 인근의 독산2동을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일부 선행연구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진행된 후에 주민 간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송용훈 외, 2015; 이상훈 외, 2013; 최경애, 2016). 이상훈 외(2013)는 주기적인 주민자치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민의 책임감과 애착심, 신뢰 등이 형성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송용훈 외(2015)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기간에 관계없이 각 당사자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커뮤니티에 속하여 주민 간 관계를 유지해야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활동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독산3동과 독산2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독산2동보다 독산3동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져왔음을 근거로 두 지역 간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정도가 다를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지역 간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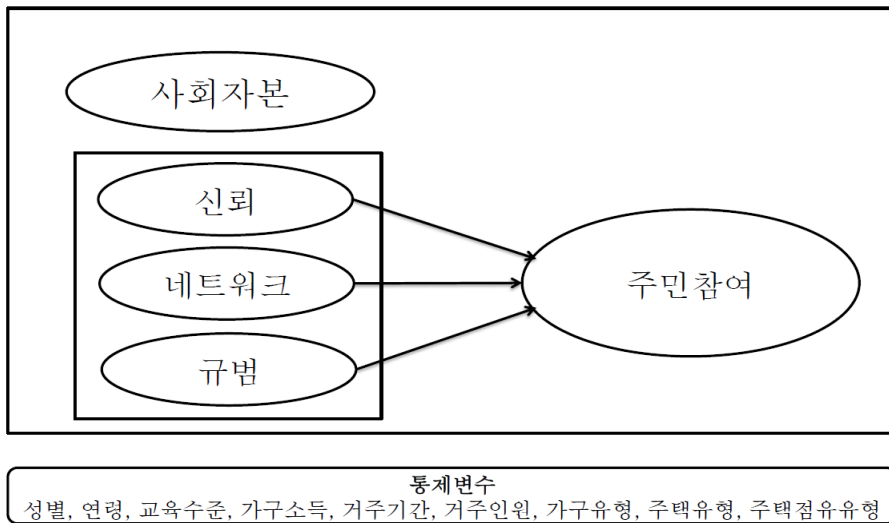
가설1. 사회적 자본은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신뢰는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네트워크는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호혜적 규범은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연구가설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 간의 인과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관계를 파악하고자한다. 이에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가구유형, 주택유형, 주택점유유형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독산2동과 독산3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금천구는 크게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가산동과 독산동(1~4동), 시흥동(1~5동)으로 구분된다. 가산동의 경우 구로구의 가리봉동과 밀접하여 공업지역이 대부분이며, 독산동은 주거지역이 밀집하고 있다. 시흥동은 현재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금천구청, 2011). 이에 본 연구는 오랫동안 금천구의 주거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독산동이 주민 간 사회적 교류가 충분하게 누적되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독산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독산동 내에서도 독산3동은 2006년에 서울특별시 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에 경험이 있다. 당시 서울특별시는 일반주거지를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범사업을 공모하였는데, 25개의 자치구 중에서 금천구가 선정되었다. 그 이후 금천구 내에서는 12개 동을 대상으로 재공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역이 독산3동이다(신중진·신효

진, 2008). 최종적으로 선정된 독산3동은 2006년부터 5년 동안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사업의 일환으로 ‘산사랑 물사랑 마을축제’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은 생활개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성의 회복과 공동체 문화회복, 지속가능한 마을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짬지공원조성, 녹화조성, 기존 공원의 정비, 벽화그리기, 마을축제 등이 구체적인 성과물로 나타났다(신중진·신효진, 2010). 특히, 문화마을의 ‘산사랑 물사랑 마을축제’는 시청 및 구청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주민조직 등의 다양한 주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등의 우수한 행사로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독산3동의 공무원 및 주민대표, 주민과 심층면담을 토대로, 문화마을만들기 사업 이후 해당 지역 내에서는 마을행사를 진행하고, 마을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위원회 및 전담조직이 설립되면서 마을활동에 대한 대중화와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독산3동의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에 비해 독산2동은 서울시와 금천구 주도 하에 진행되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경험은 부재했다. 금천구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진행하는 공동체 사업에 지원하여 주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의 마을공동체는 존재하지만, 시와 구의 예산을 통해 대규모의 마을공동체사업의 경험이 없으며, 독산2동을 대표할만한 공동체는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독산2동의 공무원 및 주민대표, 주민과 심층면담을 통해, 독산2동의 대규모 마을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나 위원회, 주민들의 관심 등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독산2동과 3동은 2017년 4월 기준으로 각각 20,786명과 25,42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각각 2.26명과 2.21명이다(금천구청, 2017). 이렇듯 동일 자치구 내에 인접한 두 행정구역은 인구 수 및 세대당 인구는 유사하지만, 독산3동과 같이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적극적인 공동체 사업의 유무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산2동과 독산3동 내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차이를 보일 것이라 판단하였고, 두 지역을 비교·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했다. 한편, 본 연구는 두 지역 간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표준화 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심도 있는 양적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고자 주민센터 공무원과 주민대표, 주민 등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3. 연구 자료 및 변수 설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상술했듯이,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병행하였다. 첫째, 독산2동과 독산3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주민의 인식을 조

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5월과 6월에 걸쳐 2차례 진행하였으며, 행정구역 내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각 구역에 100부씩 총200 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응답지에서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하여 정리한 결과 독산2동은 78 부(회수율 78%), 독산3동은 87부(회수율 87%) 등 총165부(회수율 82.5%)를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둘째, 심층면담은 독산2동과 독산3동의 공무원, 주민대표, 주민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산2동과 독산3동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2명(공무원 A·B씨), 독산2동과 독산3동의 주민대표 1명(주민대표 C·D씨)과 독산3동의 주민주민 1명(주민 E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의 질문사항으로는 각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정도와 주민 참여정도, 마을행사 혹은 마을사업의 진행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및 주민 간 관계 등을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주민참여는 실제 마을공동체사업의 프로그램¹⁾의 내용에 대한 참여의사를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였던 주민참여가 마을공동체사업에 국한하여 진행 되기 때문에, 실제 마을공동체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를 리커트 4점 척도(①참여의사 전혀 없음↔④참여의사 매우 있음)로 파악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크게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실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다수의 선행연구(오미옥·이진향, 2013; 하성규·박기덕, 2011; 홍성모 외, 2011)는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을 사회적 자본으로 설정하여 그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였고, 선행연구(고진숙·서영수, 2016; 김순은, 2014; 노병찬·주덕, 2016; 이양수, 2006; 이인숙, 2015; 조용란, 2011)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신뢰의 경우 리커트 5점 척도(①매우 불신↔⑤매우 신뢰)로 신뢰의 정도를 파악하였고, 네트워크의 경우 해당 모임의 참여정도를 5점 척도(①참여 안함↔⑤매일 참여)로 측정하였다. 규범의 경우 해당 규범 내용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①매우 동의하지 않음↔⑤매우 동의함)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금천구청(2014)은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마을 계획을 수립, 마을기업을 위한 기금모음, 공동육아, 지역 안전을 위한 방법활동, 지역의 환경정비 혹은 개선, 지역모임 구성을 통한 활발한 회의, 마을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이 존재한다.

〈표 2〉 설문문항

변수	구분	설문문항
종속 변수	주민 참여	P1 마을의 계획수립에 참여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P2 마을기업 및 조직의 기부에 참여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P3 마을 내 공동육아에 참여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P4 마을 내 안전 및 방범 활동에 참여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P5 마을 내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P6 마을 내 모임 구성 및 운영에 참여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P7 마을 내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참여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독립 변수	신뢰	T1 우리 동네 이웃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T2 우리 동네 낯선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T3 우리 동네 외국인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T4 우리 동네 주민센터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T5 우리 동네 구청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T6 우리 동네 구의원·시의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T7 우리 동네 마을활동단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네트 워크	N1 우리 동네 이웃 친구 모임에 어느 정도 참석하십니까?
		N2 우리 동네 반사회나 자치회 등에 어느 정도 참석하십니까?
		N3 우리 동네 봉사활동 모임에 어느 정도 참석하십니까?
		N4 우리 동네 마을공동체 모임에 어느 정도 참석하십니까?
		N5 우리 동네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모임에 어느 정도 참석하십니까?
	호혜적 규범	R1 우리 동네에서는 마을 주민 간 능력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까?
		R2 우리 동네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며, 해당 의견이 적실히 반영됩니까?
R3 우리 동네에서는 나를 비롯한 이웃 간에 배려가 있습니까?		
R4 우리 동네에서는 공중도덕이나 마을규범이 잘 지켜집니까?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앞서 제시했던 변수를 토대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모두 연속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 설정했던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은 연속형 변수이며, 성별, 가구유형, 주택유형, 주택점유유형의 경우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미변수의 경우, 괄호 안의 변수가 실제 다중회귀분석에 투입한 변수를 의미하고 있다.

〈표 3〉 기술통계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주민참여	P1	165	2.21	1.064	1	4
		P2	165	1.99	1.090	1	4
		P3	165	2.05	1.106	1	4
		P4	165	2.15	1.122	1	4
		P5	165	2.30	1.089	1	4
		P6	165	2.13	1.079	1	4
		P7	165	2.16	1.104	1	4
독립변수	신뢰	T1	165	3.19	1.151	1	5
		T2	165	2.95	1.206	1	5
		T3	165	2.58	1.375	1	5
		T4	165	3.77	0.746	1	5
		T5	165	3.62	0.836	1	5
		T6	165	2.76	1.254	1	5
		T7	165	3.16	1.067	1	5
	네트워크	N1	165	2.92	1.587	1	5
		N2	165	1.80	1.507	1	5
		N3	165	1.88	1.567	1	5
		N4	165	1.79	1.517	1	5
		N5	165	1.72	1.501	1	5
	호혜적 규범	R1	165	4.03	1.044	1	5
		R2	165	3.27	0.995	1	5
		R3	165	3.37	0.970	1	5
		R4	165	3.36	0.970	1	5

통제변수	성별(남자)	165	0.5	0.502	0	1
	연령	165	4.01	1.397	2	6
	교육수준	165	3.67	1.159	1	6
	가구소득	165	3.72	1.282	1	6
	거주기간	165	11.07	7.418	1	40
	거주인원	165	3.21	1.222	1	6
	가구유형(1인가구)	165	0.12	0.327	0	1
	주택유형(아파트)	165	0.30	0.461	0	1
	주택점유유형(자가)	165	0.64	0.481	0	1

2.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독립변수 간 동질성을 확보하여 측정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²⁾ 구체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의 총 16개 문항이 총 3개의 요인으로 묶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추출된 요인 4개 모두 1이상의 고유값(Eigen value)을 가지고 있어, 각 요인들이 하나 이상의 분산을 설명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각 요인들의 크론바 알파(Cronbach's α)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들의 신뢰성이 역시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 및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Cronbach's α)
			성분				
			1	2	3	4	
종속변수	주민참여	P2	.950				.972
		P6	.939				
		P4	.926				
		P1	.924				
		P5	.923				
		P3	.907				
		P7	.906				

2)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것과 달리, 확인적 요인분석은 연구자가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한 요인모형을 방증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김주환 외, 2009: 103).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하였고, 요인추출은 고유값 1.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변수 및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Cronbach's α)
			성분				
			1	2	3	4	
독립변수	신뢰	T6		.872			.972
		T7		.867			
		T3		.835			
		T2		.825			
		T4		.799			
		T1		.795			
		T5		.795			
	네트워크	N2			.962		.832
		N4			.960		
		N5			.957		
		N3			.936		
		N1			.812		
	호혜적 규범	R4				.888	.917
R3					.873		
R2					.828		
R1					.712		
고유값(Eigen value)			5.992	4.795	4.416	2.611	-

3. 지역 간 T-test 분석

독산2동과 독산3동의 각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두 지역을 분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산3동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등에서 독산2동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두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네트워크 측면이었고, 독립변수의 신뢰와 호혜적 규범의 경우 두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등의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에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두 지역 간 표준화 계수의 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5>는 두 지역 간 변수 차이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5〉 지역 간 T-test 분석

변수		독산2동	비교	독산3동	t값	유의확률
종속 변수	주민참여	평균	<	2.4158	3.396***	.000
		표준편차		1.16031		
독립 변수	신뢰	평균	<	3.1978	0.666	0.507
		표준편차		0.99421		
	네트워크	평균	<	3.6408	2.301***	0.023
		표준편차		0.82826		
	호혜적 규범	평균	<	2.0276	0.068	0.946
		표준편차		1.25516		

각 변수별 값을 단순 평균한 수치를 바탕으로 T-test 실시
 Levene 등분산 검정(5% 유의수준) 결과, 등분산성이 모두 가정됨
 *p < 0.1, **p < 0.5, ***p < 0.01

4.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이 종속변수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의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통제하였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독산3동과 독산2동을 아우르는 통합모형을 통해 큰 맥락에서의 독립 및 종속변수 간 관계를 탐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상이한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각의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본 연구결과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독산2동과 독산3동의 각각의 모형을 분석하였고, 모형의 영향계수 간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자 표준화 계수(β) 값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든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은 적정수준을 나타내었고,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값이 1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사례의 회귀모형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본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두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통합모형의 경우, 독립변수의 3가지 사회적 자본이 종속변수인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산2동의 경우, 사회적 자본 중에서 네트워크만이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독산3동의 경우 사회적 자본의 신뢰와 네트워크가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3가지 모든 경우에서 ‘네트워크’만이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고, 각 모형마다 유의미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각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기간 등이다. 구체적으로 남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6>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표 6> 다중회귀분석

구분		통합		독산2동		독산3동	
		β	t	β	t	β	t
독립 변수	신뢰	0.429***	4.429	0.178	1.587	0.276*	1.999
	네트워크	0.558***	5.134	0.422***	3.198	0.852***	5.836
	호혜적 규범	0.216***	2.677	0.135	1.143	0.215	1.192
통제 변수	성별(남자)	0.084*	1.943	0.035	0.552	0.066	1.372
	연령	0.113**	2.317	0.089	1.179	0.043	0.833
	교육수준	0.127**	2.363	0.122*	1.751	0.102	1.631
	가구소득	0.059	1.076	0.183**	2.472	0.047	0.07
	거주기간	0.033	0.691	0.142*	1.897	0.023	0.464
	거주인원	-0.079	-1.346	-0.136	-1.652	-0.042	-0.620
	가구유형(1인 가구)	0.011	0.201	0.084	1.028	-0.023	-0.355
	주택유형(아파트)	0.061	1.375	0.095	1.519	-0.036	-0.723
	주택점유유형(자가)	0.014	0.286	0.005	0.064	0.028	0.468
adjusted R ²		0.731		0.747		0.842	
F		38.062***		19.958***		39.050***	
N		165		78		87	

*p < 0.1, **p < 0.5, ***p < 0.01

5. 토론

우선, 독산2동과 독산3동을 모두 포함한 전체 165명의 표본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6>에는 독립변수의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의 3가지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고진수·서영수, 2016; 이양수, 2006; 이희경·박종관, 2012; 전용식, 2008)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통합모형의 표준화 계수(β)를 비교해보면 네트워크가 0.558로

종속변수인 주민참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주민참여를 위해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는 독산2동과 독산3동의 모형에서도 일관되게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다중회귀분석 결과 네트워크가 신뢰나 호혜적 규범보다 주민참여에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사회적 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주민참여에 대한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병록(2011)은 사회적 자본의 신뢰와 네트워크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네트워크만 주민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외에도 조용란(2011)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신뢰나 사회적 규범은 주민의 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트워크는 주민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뢰나 호혜적 규범의 요인은 연구 대상이나 영역에 따라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네트워크의 경우 보편적으로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Putnam(1993a)이 주장했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Putnam(1993a)은 시민참여의 연결망인 네트워크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만들고, 시민 간 신뢰를 향상하도록 기초가 되는 구성요소로 제시했다. 즉, 네트워크는 시민의 모든 의사소통 및 신뢰에 기반이 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요인이라 주장한다. Coleman(1988) 역시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부표 1>의 '주민대표 D씨', '주민 E씨'와의 심층면담의 내용을 통해, 주민조직의 참여가 주민이나 지역자체에 애착심을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주민 간 신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네트워크가 다른 사회적 자본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주민 E씨'와의 면담을 통해 네트워크는 마을활동의 시작점이 되며, 증폭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음 마을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조직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한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마을활동에 경험이 있는 주민은 다른 주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주민참여 유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모든 변수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그 추정계수의 방향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병록(2011)과 이양수(2006)의 연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를 토대로 보다 다양한 주민참

여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독산2동과 독산3동을 구분하여 각 지역 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연구 결과와 관련한 논의이다. <표 6>에서는 두 지역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β)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신뢰와 네트워크가 독산2동과 독산3동 간 차이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즉, 두 지역의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구성요소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독산2동과 독산3동의 공무원, 주민대표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부표 1>의 내용과 같이, 공무원들과 주민조직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조직인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주민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조직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공무원 A씨’의 의견과 같이 독산2동은 독산3동과 달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행사나 사업이 없어, 주민조직에 대한 영향력과 의존도가 독산3동만큼 강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독산3동의 경우 ‘공무원 B씨’의 의견과 같이 약 10년 전 진행된 사업을 시작으로 조직된 네트워크가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마을행사의 핵심주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볼 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대표 D씨’의 의견과 같이 10년 전 사업이 진행될 당시의 주민조직이 큰 틀에서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 있으며 그 조직을 토대로 새로운 마을활동이나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 및 보완이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측면이 약한 독산2동의 경우, ‘주민대표 C씨’의 의견과 같이 조직의 구성원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두 지역 모두 주민조직의 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대규모 마을사업의 경험이 있는 독산3동의 경우 당시 결성되었던 네트워크가 현재까지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마을운영이나 행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주민참여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독산2동은 대규모 마을사업의 경험이 없어 마을을 위한 네트워크 확립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듯 양적 분석 결과와 심층 면담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점차 확대될수록 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과 종속변수인 주민참여 간의 순수한 인과관계에 이외에도 서울특별시나 금천구와 같은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지원 및 관심, 각 행정구역 간의 역사적·지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연구 결과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계열에

따른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이를 검증하는 것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Krishna(2001)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며, 그 구성원들이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회적 구성요소임을 주장했다. 특히,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해왔다. 다만,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음을 주장하는 바, 각 사례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였고,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독산2동과 독산3동의 사례를 통해 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 행정구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행사 유무와 과거 대규모 마을공동체사업 경험의 유무 등이다. 독산3동은 과거 대규모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약 10년 간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두 지역 간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파악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두 지역을 통합하여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분석까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다중회귀분석의 통합모형을 통해 독립변수의 모든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네트워크의 경우 3가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에서 주민참여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주민대표 및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네트워크가 마을활동이나 참여에 시작점이자 증폭점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의 활동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는 주민조직의 구성원을 통해 업무를 진행했다. 또한 주민조직의 구성원이 마을활동이나 행사를 진행할 때, 구성원 이외의 지역주민에게도 정보를 공유하며 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증폭시켰다.

둘째, 독산2동과 독산3동을 각 집단으로 분류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준화 계수(β)를 비교한 결과, 두 지역의 사회적 자본 수준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네트워크 영역이었다. 과거 대규모 마을공동체사업의 경험이 있고, 현재까지 시나 구차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큰 행사를 매해 진행하는 독산3동은 주민조직 혹은 마을조직 등 네트워크 영역이 잘 구축되어있

었다. 이렇듯 견고하게 구축된 주민조직은 현재에도 주민활동이나 행사에 필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과거와 달리 마을활동의 핵심주체가 되어 오히려 주민중심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따라서 대규모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행사의 경험이 부족한 독산2동은 네트워크 역량에 대한 강조를 통해 주민참여의 참여와 유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통제변수인 인구통계학적인 일부 변수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려를 통해 보다 명확한 연구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는 주민참여에 크게 의존하며, 이러한 주민참여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추후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공을 위해 사회적 자본의 역량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조명래(2013)는 과거의 도시재생 방식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거재생을 제안하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택이나 근린환경 등 물리적 환경보다 주민 간 형성되어 있던 사회적 자본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주민조직의 네트워크나 신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원활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이 성공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에서도 네트워크가 특히 중요함을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주민 간 네트워크의 확립을 통해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운영 및 주민참여 확보에 유리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시나 구차원에서 마을사업이나 활동을 구상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민조직이나 마을조직 등 네트워크 조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독산2동과 독산3동의 다중회귀분석의 표준화 계수(β) 비교를 통해 두 지역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사회적 자본의 역량은 네트워크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지역행사 등의 주민중심의 사업진행 이후,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 중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일시적 혹은 단기적인 주민조직이 아닌, 지속적으로 주민조직이 운영되도록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추후 새로운 주민활동이나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사업의 활성화가 미약한 지역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역량 증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의 특정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2개의 동이라는 소규모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타당성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동 단위의 분석은 마을공동체사업의 사업대상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가 사업의 실태 및 효과성 등을 적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연구대상지 이외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후속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심층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강용기. (2008).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곽현근. (2004). 동네조직 참여의 영향요인 및 심리적 효과. 「지방정부연구」, 8(4): 381-404.
- 곽현근·유현숙. (2005).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347-376.
- 고진숙·서영수. (2016). 확장된 계획이론을 적용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 의도 관계 분석. 「관광레저연구」, 28(9): 7-25.
- 금천구청. (2011). 「2011 구정백서」.
- _____. (2014). 「금천마을백서」.
- _____. (2017). 「2017년 4월 금천통계연보」.
- 김권수. (2014). 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와 참여만족이 공동체의식과 마을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18(4): 61-81.
- 김대진. (2011). 지역공동체의식이 협력적 갈등해결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쟁해결연구」, 9(1): 67-93.
- 김동근. (201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분석. 「국토계획」, 46(3): 5-17.
- 김병록. (2011).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19(1): 1-19.
- 김상묵·이창원·한승환. (2004).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한국행정논집」, 16(4): 861-885.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63-95.
- 김선희·천현숙·서연미·윤윤정. (2008).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I)」. 안양: 국토연구원.
- 김성태. (2012). 「관광특구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로컬관광거버넌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 김홍순·원준혁. (2013). 주민참여 및 인식도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특성에 관한 고찰. 「서울도시연구」, 14(1): 93-111.
- 노병찬·주덕. (2016).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참여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 「지방정부연구」, 20(1): 241-259.
- 박선희. (2009). 「문화관광개발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강릉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진·나주몽. (2015).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8(4): 31-51.
- 박종관. (2012). 지역공동체 형성전략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7): 183-193.
- 박진아·김병석. (2014). 근린환경만족도 및 지역사회 애착도가 마을만들기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도시설계」, 15(2): 215-226.
- 박희봉. (200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정부학연구」, 8(1): 5-44.
- _____. (2005). 거버넌스증진의 전제로서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 「국가정책연구」, 19(2): 69-103.
- 박희봉·김명환. (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한국행정학보」, 34(4): 175-196.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배응환. (2002).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정책. 「정부학연구」, 8(2): 216-252.
- 문창용·나주몽. (2015). 원도심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3): 1-26.
- 서종녀·하성규. (2009). 공동주택 커뮤니티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 분석. 「국토계획」, 44(2): 183-193.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8.
- 송용훈·김용희·정문기. (2015). 마을만들기에서 참여동기에 따른 주민참여가 유대감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 24(4): 99-128.
- 신종진·신효진. (2008).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2): 109-120.
- _____. (2010).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6(10): 233-244.
- 신종진·송승현. (2010).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구도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6(1): 295-306.
- 오미옥·이진향. (2013). 사회적 자본이 거제지역 복지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93-112.
- 오승은. (2012).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행정」, 22(2): 65-90.
- 유동상·임정빈. (2016). 도시 정책결정의 주민참여 상대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4): 311-330.
- 유민이·문상호·이숙종. (2012).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1(4): 111-145.
- 윤원수·양덕순. (2014). 주민자치센터 참여만족도가 지역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탐라문화」, 45: 57-86.

- 이병대·심재승. (2012).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를 통한 구도심 재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4(2): 183-206.
- 이상훈·이건원·정윤남·김세용. (2013).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14(1): 137-149.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3): 25-43.
- 이인숙. (2015).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7(2): 237-257.
- 이재완.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7(4): 409-437.
- 이중수·윤영진. (2009). 『새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지혜·이명훈·전병해. (2009).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국토계획』, 44(1): 73-85.
- 이희경·박종관. (2012). 사회자본이 지역축제의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192-200.
- 이희창·박희봉·전지용. (2008).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51-76.
- 이희태. (2012).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전략. 『지방정부연구』, 16(3): 69-89.
- 전용식. (2008). 정보화마을의 사회적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전자상거래학회지』, 9(2): 63-77.
- 정영윤. (2013). 주민 참여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 증진. 『지방행정』, 62(721): 28-31.
- 정현·전희정. (2019). 근린환경과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도시설계』, 20(1): 91-110.
- 정현·전희정.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인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0(1): 141-161.
- 정현·탁성숙·정문기. (2017).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9(3): 509-535.
- 조명래 외 공저. (2011).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 파주: 한울아카데미.
- 조명래. (2013). ‘주택개발’에서 ‘사람 중심 주거재생’으로. 『공간과 사회』, 23(4): 5-57.
- 조용란. (2011). 사회자본이 지역문화축제의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15(3): 385-414.
- 조창현. (2012). 사회적 기업의 사회자본과 지역발전에 대한 실증연구. 『창조와 혁신』, 5(2): 145-180.

- 조창현·김창수·이규재. (2015a). 주관적 건강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사회자본 효과 실증분석. 「공공사회연구」, 5(2): 227-260.
- 조창현·주영규·한상일·최무현. (2015b). 탄자니아 공동체의 참여와 사회자본에 대한 실증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5(2): 151-181.
- 최경애. (2016).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형성. 「공공사회연구」, 6(4): 76-120.
- 최문형·정문기. (2015).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9(2): 273-306.
- 최예나·김이수. (2015). 사회적 자본과 주민행복 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53-78.
- 하성규·박기덕. (2011). 사회적 자본의 영향요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한국지방자치연구」, 12(4): 133-153.
- 하성규·신중진·장세훈·홍인옥·서종균. (1999).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도시연구」, 5: 198-219.
- 홍성모·황진수·류지성. (2011). 사회자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9: 291-319.
- 홍진이. (2013). 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3(2): 151-169.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ourdieu, P. (1985). The social space and the genesis of groups. *Information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24(2): 195-220.

_____.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Greenwood Press, 241-258.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_____.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unningham, J., V. (1972).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 589-602.

DeGraaf, D., & Jordan, D. (2003). Social capital. *Parks & Recreation (Ashburn)*, 38(12): 20-27.

Dhesi, A., S. (2000).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5(3): 199-214.

Fukuyama, F. (1995). *Trust*. New York: Free Press.

Healy, T., & Cote, S.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Hanifan, L. (1920). *The Community Center*. Boston: Silver, Burdette & Co.
- Harrigan, J. (1989). *Political change in Metropol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 Hillery,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Rural Sociology*, 20: 111-123.
- Kaase, M. (1999). Interpersonal trust, political trust and non-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22(3): 1-21.
- Krishna, A. (2001). *Enhancing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mocracies*. NC: Terry Sanford institute.
- Lappe, F. M., & Bois, P. M. (1997). Building social capital without looking backward. *National Civic Review*, 86(2): 119-128.
- Leana, C. R., & Buren, H. J. (1999).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employment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3): 538-555.
- Mattessich, P., Monsey, B., & Roy, C. (1997). *Community building*. St. Paul (MN): Amherst Wilder Foundation.
- McCracken, R., J. & Narayan P., D. (1998). *Participation and social assessment*. Washington DC: World Bank Publications.
- Nahapiet, J.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 Narayan, D. (1997). *Voices of the poor*.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Narayan, D. & Pritchett, L. (1997). *Cents and sociability*. Washington DC: World Bank.
- Olson, M.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Perkins, D. D., Meeks, J. W., & Taylor, R. B. (1992). The physical environment of street blocks and resident perceptions of crime and disorder.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2: 21-34.
- Perry, J. & Katula, M., C. (2001). Does service affect citizenship? *Administration and Society*, 33(3): 330-365.
- Portes, A. (1988). Social capita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 D. (1993a).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4(13): 35-42.
- _____. (2001).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erageldin, I. & Grootaert, C.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Washington DC: World

Bank.

Verba, S. (1967). Democratic particip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373(2): 53-78.

Verba, S. & Nie, 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ow.

정 현 (鄭賢):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주택관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단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혼합 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정도를 중심으로),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혼합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근린환경과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19, 주저), “주택관리가 사회적 혼합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단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단지와 비활성화 단지 비교연구”(2018, 주저), “Residential Satisfaction Among Public Housing Residents Living in Soical-Mix Housing Complexes: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orea”(2018, 공저) 등이 있다(hjeong@krihs.re.kr).

정 문 기 (丁文基):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Local Land Use Choic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Development Impact Fees in Florida, 2004),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및 도시발전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지역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정부 간 관계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주거환경만족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애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18, 공저), “한국거버넌스 사례집”(2016, 공동성·정문기 엮음), “한국거버넌스 사례연구”(2015, 공동성·정문기 엮음) 등이 있다(mgjeong@skku.edu).

부록

〈부표 1〉 심층면담 내용

구분	독산2동	독산3동
공무원	<p>“시청이나 구청으로 무슨 주민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다는 공문을 받으면, 우선 저희는 마을조직의 대표님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 드리죠. 협조를 구하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운영이 되거든요. 다만, 우리는 현재까지 시나 구차원에서 홍보되는 큰 행사가 없어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공무원 A씨).”</p>	<p>“약 10년 전 독산3동은 ‘문화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그 당시 조직된 주민조직이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유지는 되고 있죠. 여전히 마을을 대표하는 행사가 매해 있는데, 그때 주민조직이 핵심주체가 되어서 마을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행정적·재정적 지원만 하고 있죠(공무원 B씨).”</p>
주민 대표	<p>“우리 동네는 소규모의 모임은 있어요. 끼리끼리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같은 이웃 간 모임이요. 뭐.. 마을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모임은 있지만, 기존에 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뭐 그런식이에요. 많은 이웃들이 참여하면 좋을텐데.. 멤버 모으는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주도해서 마을활동의 조직을 구축해줬으면 좋겠네요(주민대표 C씨).”</p>	<p>“10년 전 결성된 조직이 현재까지 운영돼요. 일부 변화도 있었지만,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왔다고 봐야죠. 지금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논의도 꾸준히 하고요. 만약 주민조직이 일시적으로 결성되었다가 사라지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힘이 들겠죠. 다시 결성하고 기초를 세워야 하니까. 10년 전 우리도 주민조직으로 정착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주민대표 D씨).”</p> <p>“마을조직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나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해요. 보통 자신들의 일처럼 열심히 활동하죠.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마을이 잘되는 것이 내 일이 잘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일해주어서 마을활동을 할 때 이들의 역할이 무척 큼니다. 이들이 주민활동의 직접적인 활동주체가 되어서 전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을활동을 하면서 신뢰가 형성되고 자치규약을 만들고 하죠(주민대표 D씨).”</p>
주민	-	<p>“주민조직에서 활동한 지 꽤 됐죠. 내 이익을 바라고 활동하는 건 절대 아니구요. 마을이 잘되는 것이 결국 내가 잘되는 거랑 같으니까요. 이런 주민조직에서 활동하면서 마을주민에 대한 시선이나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커진 것 같아요. 적어도 조직에 활동하는 주민끼리는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고 의지하니까.. 또 여기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참여하기 전과 달리 마을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심이 더 커졌죠. 이제는 다른 주민들한테도 같이 하자고 막 권유하고 그래요(주민 E씨).”</p>

